B4609 전문인들의 정직성 17-09-18a

-------------------

제가 드리는 이 칼럼이 정직하고 성실한 많은 전문인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 까 염려를 합니다. 그러나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정직하지 않은 전문인으로 인하여 옳게 종사하시는 다른 많은 전문인들에게 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

한 애청자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. 한인 전문인들의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경험했는데 몹시 불쾌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. 메디칼 수혜자이신 그 애청자는 한인 타운의 한 내과 의사를 찾아 갔는데 자기기 찍지 않은 초음파 사진이 3장이나 자기 이름으로 독해 판에 걸려 있음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. 자기는 치매 환자도 아니고 기억력이 정상임으로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정도는 생생하게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찍지도 않은 초음파 사진을 3장이나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. 물론 그 비용은 정부에서 지불해 주겠지만 그 사진은 절대로 자기의 사진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올렸습니다. 그 분은 매일 일지를 적기 때문에 언제 그 의사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의사 사무실에 가지도 않은 날에 초음파 사진을 찍었다고 우겨대는 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한탄을 했습니다. 더욱이나 그 분의 아들은 검찰국의 수사과장인데 이 케이스를 아들에게 넘겨서 수사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 때서야 그 의사가 자기가 실수했다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사정을 하다라는 것입니다.

또 한 분은 한인 사회에 비교적 잘 알려진 치과 의사에게 치아의 검진을 받으려 찾아 갔었다고 했습니다. X 레이 사진도 찍어 보지도 않고 한번 쳐다보더니 앞니 두 개가 썩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두 개의 치아를 빼야 되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. 고통 도 없었고 아무런 이상을 경험해보지 않은 그분은 그 치과 의사를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.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 다녀 올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저명한 치과의사를 찾아가 앞니 두 개가 정말로 빼야 할 정도로 썩었는지 문의 했습니다. 한국의 치과의사 왈 “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”고 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. 만일에 로스 안젤스의 치과 의사의 말만 믿고 앞니 두 개를 뺐더라면 또 두 개의 치아를 새로 이식 내지는 부릿지를 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분도 분개했습니다.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적지 않은 액수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상 예를 드린 두 분의 전문인들은 정직하지 못했거나 찾아온 환자를 무지한 사람으로 여기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. 이런 환자들이 신고를 하면 그런 전문인들은 불필요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비록 허물을 벗는다고 하더라도 평판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한인 치과의사가 계십니다. 친분도 돈독하고 정직한 그 치과의사를 6 개월에 한번씩 찾아가는데 메디칼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저이지만 그런 전문인을 찾아가서 치아의 손질을 받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. 저는 제가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시간이 모자라서 정직한 공인 회계사에게 맡깁니다. 그 회계사는 단 일푼이라도 정도에서 벗어나는 보고를 하지 않을 분으로 100% 신임을 제가 하고 있지만 만일에 제가 약간의 분식이나 허위를 부탁한다면 딸 같은 그 회계사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

회계사, 의사, 치과의사, 또는 심리와 사업 자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직하고 성실한 동포 전문인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며 저도 정직하신 전문인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연못을 흐린다는 속담처럼 극소수의 부정직한 전문인들이 대다수의 정직한 분들의 이미지를 흐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아무리 나이가 든 환자나 고객일지라도 또는 아무리 허술한 옷차림을 하고 찾아오는 환자나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극도의 정직과 예의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. 누가 압니까? 저에게 전화 하신 분처럼 찾아오신 노인이 수사과장의 부모일 가능 성도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을 것입니까? 끝